

국내 전·노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전두환 환수 절차 마무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6년 간 미뤄왔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절차가 마무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이에 앞서 9월 4일 미납됐던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금 2628억원 전액을 완납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불거진 국정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흔의 아들 의혹' 보도로 물러나면서 여론 및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채 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中 시진핑-리커창 체제 출범 국제

美 연방정부 섰다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6일간 섰다운 업무와 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지됐다. 채무 한도 재조정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제5세대 지도부 구성

올해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이 총리로 선출돼 시진핑과 리커창을 두 축으로 하는 중국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했다. 5세대 지도부는 집단지도 체제 내의 의사결정 신속화를 위해 9인 상무위원 체제였던 제4세대 지도부와는 달리 7인 상무위원 체제로 구성됐다.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지난 1월30일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호센터에서 3차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 인해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자국 발사대에서 쏘아올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이른바 '스페이스(우주)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며,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과정에서 'NLL 포기', '대화록 사전 유출', '사초(史草) 실종' 논란 등이 접화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동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유세에서 실제 대화록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록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갈등

중국이 지난 11월23일 선포한 동중국해 상공 방공식별구역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함으로써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조치로 한국은 이어도 상공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했다.

초강력 태풍 필리핀 강타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지난 11월8일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해 6000여명이 숨지고 1779명이 실종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태풍으로 또 2만7000여명이 부상하고 무려 400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울러 59만여채의 가옥이 완전 붕괴하고, 농지·인프라 부문에서 약 8억2600만 달러(8700억원)의 피해가 났다.



원전 비리와 전력위기

'원전 부품 납품 비리'로 이명박 정부의 '왕좌권'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13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고, 전체 사법처리 대상은 150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국전력 임직원과 브로커가 챙긴 뒤편은 수십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해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 대란위기에 직면했다.

5·18평화-역사교과서 논란

정부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새로운 추모곡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5·18 역사 왜곡·폐해'가 촉발됐다. 여기에 검증된 사실까지 건드리며 역사를 왜곡하는 보수 인터넷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의 시도가 더해져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이집트 무르시 축출

이집트 군부가 지난 7월3일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강제 축출했다. 군부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받아들여 실정된 무르시를 집권 1년만에 축출했다고 밝혔지만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군사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군경이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이 숨졌다. 무르시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과 받고 있다.

만델라 전 대통령 타계

27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는 등 민주화 투쟁을 이끌며 남아공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가 지난 12월5일 요하네스버그 그택에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흑인을 탄압하던 백인을 포용해 용서와 화합의 정책을 펴 흑백이 공존하는 새 남아공을 건설했다.



북한 장성택 숙청

북한은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을 열어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처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이색분자'들을 규합해 북한을 위기에 빠뜨리고 권력을 탈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그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권력 구도의 격변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꼽힌다.

북한 3차 핵실험

북한은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하 핵 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40여 분만에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3월 7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日 아베노믹스와 우경화

아베 신조 총리는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대규모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추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는 등 전후체제 탈피를 향한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교황 베네딕토 16세(85)가 지난 2월 전격적으로 퇴위했다. 그는 1415년 그레고리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됐다. 이어 3월 열린 콘클라베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76)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비 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1282년만에 처음이고, 미주 대륙에서는 사상 첫 교황이다.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또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인비 LPGA 메이저 3연승

박인비는 올 시즌 메이저대회 3연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6승을 올리며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가 됐다. 지난해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을 휩쓸어 한국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박인비는 올 시즌 '올해의 선수상'에 더해 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르며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뚝 섰다.

스노든, 美 NSA 도청 폭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6월1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NSA가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과 이메일 해킹한 행위를 폭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스노든은 20여개국에 망명신청, 현재 러시아에 임시 망명해 있다.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

3년째 내전이 이어진 시리아에서 8월 21일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화학무기 공격이 이뤄져 500~1400여 명이 사망했다. 서방은 정부군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습을 계획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폐기 전에 합의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열 두레유류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단체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8/9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